

“퇴보하는 우정사업 환경개선에 온 힘”

최영진 제53대 전남지방우정청장

모바일 기반 상품개발 등 시장 다변화 대응 조직문화 개선 등 상생 노사문화 정착 노력

“재임기간동안 안정적이고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우정청과 지역민이 함께 발전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53대 전남지방우정청장에 취임한 최영진 신임청장의 포부다.

최 신임청장은 갈수록 퇴보하고 있는 우정사업 환경 개선을 통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실제 우편산업의 근간인 통상물량은 대체통신의 발달로 5년전에 비해 8억통(19.4%)감소했다.

소포사업도 신규택배사의 시장진입, 인수합병 등으로 경쟁이 치열해 상황이 좋지 않고 금융사업 역시 모바일 금융시대가 열리면서 수신의 고금리, 여신의 간편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은 난관 속에 최 신임청장은 집배물류 혁신을 통해 사업을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 청장은 “내년 본격적 운영을 앞둔 중부권 광역우편물류센터와 관련 물류 네트워크 개편 계획이 진행되고있다”며 “기존 수작업 위주에서 벗어나 혁신을 통해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생각의 틀을 바꿔 내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정청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도 시장의 변화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추진된다.

최 청장은 “모바일시대에 맞춰 우리 지역에 맞는 특산품 상품 개발과 모바일 기반 플랫폼 사업자들의 제휴를 통해 시



장진출을 모색하겠다”며 “시장의 변동성에 적극 대응한 우편, 금융사업으로 내실을 다지면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직원들이 근무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 개선도 꾀한다.

좋은점은 지속시키고 부정적인 관행은 과감히 탈피하고, 내부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곧 고객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 청장은 “직원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고, 상하간에는 인격존중이 기초가 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청장은 지역민들과 끊임없는 소통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지역민들의 편의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테니 지역민들도 우체국을 믿고 함께 발전할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 신임청장은 서울대 지리학과, 미국 위스콘신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6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해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총괄과장, 국립전파연구원장, 국제부흥개발은행(IBRD)등 주요보직을 거쳤다. /김용현 기자



첨단1동 ‘10월의 어느 멋진날’ 마을축제
광주시 광산구 첨단1동 주민들은 최근 쌍암공원에서 종교장터·문화공연·체험부스 등으로 구성된 ‘10월의 어느 멋진 날, 마을축제’를 개최했다.



대구-광주 교류 음악회 ‘달빛통맥’ 포크콘서트
대구와 광주의 포크뮤지션들이 참여한 교류음악회 ‘2018 달빛통맥 콘서트’가 최근 풍암호수공원에서 열렸다. 올해 행사에는 야외 포크콘서트 약 500여명, 워크숍에 60여명의 포크뮤지션들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가을밤의 포크를 노래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아들 건호씨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관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노건호 씨가 2018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을 관람했다.

10일 오전 10시 노건호 씨가 중국 국영기업업자 문화콘텐츠 그룹 부사장 등과 함께 광주비엔날레 융복합 전시관을 찾았다.

이날 노건호 씨는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1전시실부터 5전시실까지 도슨트 투어에 따라 꼼꼼하게 전시를 관람했다.

전시 관람 후 오후 2시부터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 박향 광주시 문화관광과

육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하는 중국의 국영기업인 CMG와 광주시와의 문화 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의 국영기업인 CMG 측은 미디어 아트 창의도시인 광주시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노건호 씨는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과의 간담회 이후 국립5·18민주묘지와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을 방문했다. /이연수 기자



장흥 ‘승마 가족’ 이승호·경호 쌍둥이 형제 제14회 세계 기사 선수권대회 평정

장흥에서 ‘승마 가족’으로 입소문 난 쌍둥이 형제 등이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제14회 세계 기사(騎射) 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경호·승호(20) 형제는 최근 속초영랑호화랑도 체험장에서 열린 ‘세계기사 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

이 대회에서 동생인 승호씨는 속사·연속사·과바크 종목에서 각각 1위를 차지, 종합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세계기사 선수권대회’ 승마 종목은 속사·단사·연속사, 단제전인 모구(毛毬)·과바크(Qabaq·장대 위에 설치된 과녁을 맞는 경기) 등이다.

승호씨 가족은 장흥에서도 유명한 승마 가족인데, 쌍둥이 형인 경호씨는 이번 대회 연속 경기에서 2위를 기록했다.

단체전인 마사희(馬射戲)에선 경호씨가 두 살 아래 여동생인 나라양(18)과 동반 출전, 동메달을 따냈다.

현재 쌍둥이 형제의 아버지는 장흥군에서 장흥솔로시티승마장을 운영하며 지역 승마산업 발전과 승마 인구 육성에 힘쓰고 있다.

이승호씨는 “가족 모두가 든든한 후원자가 돼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앞으로 더욱 실력을 쌓아 마상무에 최고의 자리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장흥=이유현 기자



목포시어린이급식센터 식물관 체험관 운영
목포대학교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목포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최근 ‘목포 향구 축제’에 참가해 올바른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한 체험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교구를 활용한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광주시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인증서 수여식
광주시는 10일 광산구에 위치한 나무로협동조합에서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4개사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담양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담양군이 최근 담양문화회관에서 다문화가족 500여 명과 각 기관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담양군 다문화가족센터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결혼이민자 여성으로 결성된 그린나래 무용단과 수북태권도 태권체조를 시작으로 담양군에 거주하고 있는 11개국 국가별 국기 입장, 모범가정을 이룬 다문화가족 3세대에 대한 표창 및 기념식이 진행됐다.

또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 겪은 생활수기 발표와 가족 장기자랑 등 다문화가족이 상호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박철웅 다문화가족센터장은 “관내 다문화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우의를 다지고 더 나아가 한국문화의 적응을 도모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으며 다문화가족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에는 현재 309명의 이주여성성이 1,200여 명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 담양군은 이들 가정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 적응을 위해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지원, 한글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담양=장동원 기자



광주복지재단 ‘질적 연구교육’ 실시

광주복지재단은 오는 25일부터 이틀간 광주사회복지회관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를 위한 질적 연구교육’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사회복지 현장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질적 연구 및 질적 프로그램 평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사회복지사의 업무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

또 질적 연구의 기본적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습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했다.

이번 교육대상은 광주지역 사회복지

관 종사자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주제 및 내용은 사회복지 질적 자료분석 이해와 활용으로 ▲질적 관점의 필요성 ▲질적 자료수집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등이다.

장현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이 현장의 사회복지인력의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모집일정은 오는 18일까지며, 교육참여 희망자는 재단 홈페이지(www.gjwf.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강성수 기자



코레일 광주본부 ‘시민참여혁신단’ 발족

코레일 광주본부는 10일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과 시민참여혁신단을 발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시민참여혁신단은 범정부적 정책인 사회적 가치실현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 사회 학계, 언론, 문화계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로 구성됐다.

혁신단은 ▲광주본부 주요역의 유휴공간 등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 특화사업 발굴과 지원 ▲정년창업 유치 ▲학

생들의 현장체험 및 관련학과 직무체험 제공 등 지역사회 환경에 맞는 정책선정과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정구용 코레일 광주본부장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실행 아이디어들을 발굴, 지역과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중찬 기자